

모두 말씀

2024. 4. 8. (월)

고용노동부 차관

이 성 희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님,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그간 고용-금융 협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복지와 자립은 일자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복합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위,
자립준비청년의 단계별 취업지원을 위해 복지부,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다양한 부처와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 * ▲ 고용-금융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4.1.24)
-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부 업무협약('23.12.20), 일학습병행기업 현장방문('24.2.7),
기업과의 만남의 날('24.4.1)
- ▲ 근로장려금 연계를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23.8.8)

Ⅱ.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당부사항

오늘은 고용부와 금융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7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고용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차질 없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서 “고용과 금융간 연계서비스”가 논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견고히 협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뜻을 모아 국민분들께 실제 도움을 드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제도와 시스템간 연계 뿐만 아니라

현장 일선까지 협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끊임없이 소통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고용복지+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만나는
이 자리를 계기로 더욱 자주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에서도 최일선 상담사분들을 위하여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니,
현장에서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처간 협업의 성공 경험을 많이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금융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연결하여
일자리로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해야
국민들께서도 고용-금융 연계를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금융간 연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전산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V. 마무리 말씀

고용과 금융간 연계는 출발점을 나섰습니다.

부처간 협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드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고용-금융 상담사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국민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주거, 머니(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주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